

2024년 경기문화예술교육 통합공모

중견단체 판로지원 <노는예술, 더하기> 최종 심의평

2024 경기문화예술교육 통합 공모 중견단체 판로지원<노는예술, 더하기>에서 지역의 현안을 들여다보고 다양한 자원(지역의 이슈와 니즈, 지역의 예술가, 협력자, 지역이 가지는 키워드 등)을 바탕으로 판로를 모색하는 부분에 있어 사업의 취지와 사업의 대상이 되는 수요처가 잘 매칭되고 있는지를 주로 평가했으며, 그와 더불어 수요처의 의지가 잘 반영되는지, 기획의 의도가 분명한지를 평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문화예술교육이 가지는 다양한 접근과 고민을 예술가 및 예술교육자 단체들이 다양하게 풀어가는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대상과 수요 중심에 집중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무엇’에서 ‘어떻게’의 관점으로 예술가의 경험과 철학이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 각각 마주하는 대상 또는 참여 주체에 따른 문화적 이슈와 니즈를 다양한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현장 안에서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일부 단체의 경우 단편적 프로그램 제시, 구체적 내용 미흡, 감수성 및 친숙성 유도 부족 등이 보이는데, 향후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요처들과 예술단체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각자가 가지는 사업 참여의 목적을 살리고, 예술에 대한 더 많은 수요를 늘림으로써 사업이 더욱 뚝뚝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4. 4. 17.

심의위원 민운기, 박상용, 예정원, 이연경